

종조 창종정신 선양 · 교학 의식체계 정립

총지종, 정체성확립 나선다

종조사상 연구 · 총본산등 건립 구체화

법요의식도 대폭 개선 · 통일

총지종(총리원장 법공)이 종조의 창종정신 선양과 교학·의식 체계 정립 등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총지종은 지난해 10월 법공 총리원장 취임 이후 종단 법요의식, 종헌·종법체계 확립 등 종단 재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의 시행을 위해 전담건설위원회, 종조전건립위원회, 불사법요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종조원장대성사의 창종정신과 종단의 교학·의식 체계 개편도 진행해 나간다.

총지종은 3월 24일 종조원장대성사와 기로스승(원로급 성직자)들의 어록과 행장 정리, 총지교상 연구 등

교학과 종조사상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원장 교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종조사상 연구는 1차적으로 종령 록정대정사와 기로스승들로부터 종조사상과 행장을 육성하며, 현지스승과 원장대성사의 증언도 채록할 계획이다. 이후 각종 문헌자료 조사, 현지답사 등을 통해 자료보완 및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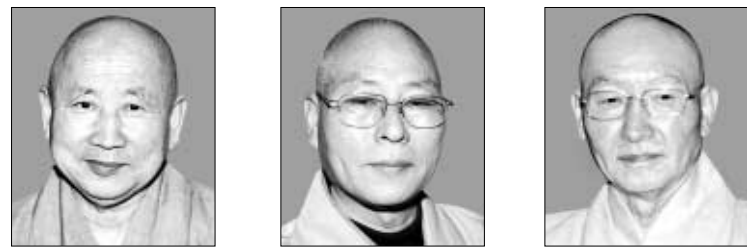
또 총본산 건립의 일환으로 이달 18일부터 종조전 조성 불사에 들어간다. 서울 총지사내에 마련되는 종조전은 종단의 법맥과 종조의 사상, 교상을 잇는 전당으로, 종단 내에서는 종조전 불사에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상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총

지종은 종조전 건립을 시작으로 총본산 건립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지종은 사원별로 제각각인 불사법요의식도 대폭 개선, 통일시켜 나간다. 불사법요위원회는 3월 27일 모임을 열고 법요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준제법()과 의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장원 주관으로 불사법요 정비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장원은 현재의 준제법을 근간으로 삼고의와 준제공덕 등을 철저히 대중에 일제간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사법요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현재 종단은 전반적인 담보상태에 있는 교학의 활성화와 정통불교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조사상 정립과 불사법요 개선 등을 통해 밀폐홍포와 종단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본자스님 ◇법수스님 ◇고암스님

지방총회·선거관리위 구성

총회회장 본자스님·선거위원장 고암스님

태고종 경기남부교구

태고종 경기남부교구는 3월 21일 사찰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방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임 총회회장에 본자스님(용인 연화사), 부회장에 법수스님(안양 불성사), 선거관리위원장에 고암스님(안양 망월암)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교구는 지난해 사퇴이후 공석중인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했다.

새로 선출된 지방총회 의원은 혜

천(수원 영통사), 성중(안성 약사사), 타무(평택 천연사), 오공(안산 지장사), 지법(이천 관음사), 혜성(여주 신고달사), 해은(화성 법흥사) 스님 등 총 9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덕(용인 관음사), 설성(여주 대왕사) 스님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신임 지방총회회장 본자스님은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교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구 스님과 신도들의 중지를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경남교구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경남교구 총무원장 월봉스님 취임식이 3월 27일 마산 경남교구 총무원 법당에서 열렸다. 월봉스님은 "종도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해 경남지역 사찰과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청년불자 단합법회 봉행

천태종 중·고교 학생회 졸업생과 대학생, 전국청년회원들로 구성된 신형모임인 천태청회는 3월 29~30일 총본산 구인사와 금당불교연수원에서 춘계 단합법회를 열었다. '새로운 도약, 하나 되는 청화'를 주제로 열린 단합법회는 관음정진, 무드라 수행, 강의, 적멸공 참배,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방법과 불교문화, 젊은 불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위해 청년불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진각종

경주교구청 현공불사

진각종은 1일 경주 황남동 흥원심인당에서 경주교구청 현공불사를 봉행했다. 효암 총리원장, 백상승 경주시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효암 총리원장은 "경주교구청 현공불사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행정을 이관하는데 있어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역포교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위덕대에 건강복지센터

위덕대(총장 손세석)는 3월 24일 사회체육학부 부설 건강복지증진센터를 개설했다. 예체능관 내에 개설된 건강복지증진센터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과 체력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과 과학적인 운동방법을 처방한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체격 및 신체구성검사, 일반 의학검사, 기초체력검사, 근·관절 기능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체력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처방을 내리는 체계를 갖춘 과학적인 운동처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복지증진센터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체력측정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체력관리실에서는 운동처방 결과물 토대로 과학적 훈련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총지종

61회 춘계스승 강공회

총지종(총리원장 법공)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제61회 춘계 스승강공회를 실시한다. 강공기간 중에는 승단총회와 정기총회, 원외회가 각각 개최된다.

승단총회에서는 결원된 종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종단 현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화활동을 위한 토의와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의회에서는 종법개정과 종단내 각 기구의 임원선임, 산하기관 감사보고 등이 이뤄진다.

한편 총리원장은 법공 총리원장과 세 집행부가 구성된 후 처음 맞는 강공회인 만큼 종단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일승종

삼봉사 남골당 건립결의



일승종 중앙총회(회장 혜인)는 3월 25일 구리 삼봉사에서 중앙총회를 열고 삼봉사내 남골당 건립을 결의했다. 삼봉사 남골당은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건립되며, 지상1층은 극락전 법당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스님전용 실버타운·만불전 조성

승가종 무량사, 종합도량 5년불사 계획

대한불교승가종 진주 무량사(주지 묘담)가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무량사는 3월 22일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열고 실버복지타운을 포함한 5개년 종합 가람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님 전용 실버타운 조

성과 108평 규모의 만불전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량사는 종합 불사 추진을 위해 이미 2만 5천평의 부지를 매입, 경남지역 포교와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도량을 위한 불사에 들어갔다.

33명의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실버복지타운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연건평 330여평 규모로 건립된다. 100여평의 부지에는 법당을 비롯한 간병실, 물리치료실, 체육시설 등도 개설해 입주 스님들이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량사는 소속 종단에 관계없이 입주를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실버타운을 개방할 방침이다.

무량사 주지 묘담스님은 "무량사 실버타운이 불교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게시판

강좌

▲서울 능인복지관은 11일까지 교양강좌 사군자·동양화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진행되며, 3개월 과정이다. 손님상 차ikip과 홀비페 미니 특강(9일)도 함께 진행된다. (02)571-2988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30일 오후 7시 법당에서 동국대 정병조 교수를 초청, '행복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042)624-6555
▲부천 원종복지관은 28일 오전 11시 오정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오정문화센터를 개원, 환경 인형교

실, 임산부 기체조, 목공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32)677-0108

구인

▲광주 전남 불교연대는 통일, 인권, 환경, 언론 등 분야에서 함께 일할 간사 1명을 구한다. 자격은 30세 미만 여성, 컴퓨터 사용가능한 사람. 마감은 15일. (062)263-4742
▲안성 연꽃마을 감로당은 생활지도원으로 일할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마감은 채용시까지. (031)671-3677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회계

담당자 1명을 구한다. 마감은 21일. 회계 경력자 우대. (02)928-0750

▲원주 시립복지원은 복지장애를 가진 부랑인 입소자를 돌볼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불교신자, 컴퓨터 이용 능숙자. 지원 서류마감은 10일. (033)747-1795

행사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6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제3회 서울 경기 노인복지관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동해사암연합신도회(회장 구성호)는 12일 경포아트 해운회관 내 해동사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11)9320-7650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은 11~13일 성주사지, 수덕사에 문화답사를 떠난다. 또 우뱀사나 수행체험과 다도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02)763-0229

이전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학산)은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15-53번지로 총무원

사무실을 이전했다. (02)491-1624-5

인사

▲신수회 △고문 이영자 △회장 이남숙 △부회장 김재화, 조명숙, 강옥형 △총무 김민자. 신수회는 현대불교신문 신형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이다.

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동에게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생(生) 지장도량 '심원사 지장전 중개축 불사' 모연문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 보개산 심원사가 지장전 중개축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다로 심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生)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신앙의 근본도량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도 진전하기를 소망하는 지장보살님이 살아계신 절이라는 환희심에 심원사에는 경향각지의 불자들이 모여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 율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사 사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심원사 지장보살님은 90cm크기의 아담한 석불로, 순박한 얼굴에 자비한 미소가 매우 다정하게 느껴지는 보살님이십니다.
이 생(生)지장보살님은 지금까지 10여평 남짓한 지장전에 봉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에 건물이 쇠락해져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워 뿐만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기도하고자 찾아오는 불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심원사 대중들과 신도회는 경향각지 불자 대중의 간절한 발원을 모아 '지장전 중개축 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원사가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금 규모의 두배가 넘는 30평 크기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사의 중요한 불전이자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상징이 될 이번 불사에 전국의 선남선녀들의 정성과 기도가 모여져 지장보살님의 위신력과 자비광명이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 지장경을 꼭 읽고 기도하셔야 할 분 ※
- ◇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
- ◇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분
- ◇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노력을 들인 것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분
- ◇ 유난히 모든일에 장애가 많은 분
- ◇ 항상 깊은 잠 못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분
- ◇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분
- ◇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분

- ▲ 동참방법
◇ 대들보 ◇ 기둥 ◇ 주춧돌 ◇ 기와 ◇ 서까래 ◇ 도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및 접수
종무소 전화 (033)455-3468
- ▲ 심원사 찾아가는길
서울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4호선 수유리 역에서 동송행 버스를타고 '편인'에서 하차.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있고,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심원사 영험 實話

"생불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불임은 <심원사 사기>가 역사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찢자국을 따라 멧돼지를 추적하던 형제는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사진>이십니다.

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는 석상에서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으나 화살은 뽑히지 않았고 석상은 계속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는 크게 깨닫고 "대성이시여 저희 잘못을 깨우치려 몸소 나투신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는 살생을 아니하겠습니다."하고 그 즉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사진>이십니다.

국내 유일한 생(生) 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